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빌립보서 3:12-14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1.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나간 실패나 실수에 대해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죄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죄책감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2)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씻어 주시되, 죄로 인한 상처도 없애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씻어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을 잊어야 합니다.

미움은 마음에 독이 될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마음에 쌓아 놓지 말고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들추어 내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 10:12)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허물을 들추어 내는 것은 끊임없는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 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이웃에게 서운한 일, 부모와 자식간에 원망스러운 일, 부부간의 상처와 아픔, 교회 성도들 간의 불평등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랑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 원망과 불평을 덮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빌 3:10-11)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좋은 가르침만을 주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2)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표가 주님께 더 붙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붙들리는 것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우리가 바라볼 쏫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쏫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릅니다.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세계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일생동안 마음에 품고 달려갈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탄식하면 이미 때가 늦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은 모두 지나갑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청춘도 다 부질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쏫대, 즉 예수 그리스도 한분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후회없이 열심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쏫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4)

쏫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늘 나라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쏫대를 향하여 달려 갈 때, 그 부르신 부름에는 반드시 상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 매일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야 하는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잊지 않고 묵상할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반대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3. 새해에는 소망하는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고,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모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고 목장예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